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2. 11.(수) 10:00 < 12.11.(수) 석간 > 배포 2024. 12. 10.(화)

장관, 미국 오클라호마 주지사와 한미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

- 정책의 일관적 이행을 통한 우리 대미(對美)투자 기업의 불확실성 최소화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2월 11일(수), 방한 중인 케빈 스팃(Kevin Stitt) 오클라호마주 주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양국이 투자·기술협력 등을 통하여 안보 동맹이자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였음을 강조하면서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어나갈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오클라호마주 에너지·환경 주장관, 주의회 상원의원, 주지사 선임 고문 등 배석

이번 면담에서 안 장관은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등의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하여 미국의 주요 정책 방향이 신(新)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지되어 미국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신뢰와 긍정적인 기대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측은 양국의 산업 생태계 강화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미 협력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한미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안 장관은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를 통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한국과 석유·가스·재생에너지 등 풍부한 자원을 가진 오클라호마주가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하면서, 향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오클라호마주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경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지사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담당자	사무관	정은지 (044-203-565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